

권두언

I.

1991년 여름이라고 생각된다. 유학을 마치고 귀국했던 나는 1년 몇 개월만에 다시금 독일 땅을 밟았다. 이미 그 때 독일은 통일이 되고 난 후여서 엄청난 가시적 또는 비가시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공부하던 Regensburg 대학은 별다른 변화가 눈에 띄지 않고 있었다. 여전히 도서관은 붐비고 교정에는 자동차와 자전거가 뺑뺑이 들어차 분주한 캠퍼스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다. 학생 식당인 Mensa에서 점심 식사를 하던 나는 여느 때처럼 식탁 위에 널부러져 있던 안내문이나 광고지같은 것을 습관처럼 들춰보고 있었다. 그 중 한 장의 선전문같은 종이에는 “맑스는 죽었다. 그러나 그의 ()은 살아있다(Marx ist tot, aber sein () lebt noch)”고 되어 있었는데 괄호 부분이 접혀져 있었다. 나는 그 접힌 부분을 들치면서 순간적으로 아마 통일 전에 거의 매일같이 학생식당에다 뼈라를 뿌린 <맑스주의 그룹(Marxistische Gruppe)>이 맑스는 죽었고 동구권은 무너졌지만 맑스의 ‘이상(Ideal)’이나 ‘이념(Idee)’은 살아 있다고 적은 줄 알았다. 그러나 거기에는 ‘Irrtum(오류)’이라는 낱말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누구 혹은 어느 단체에 의해서 뿌려졌는지 모르지만 이 쪽지는 ‘맑스는 죽었지만(그리고 그의 이념이 구현되었던 동구권은 무너졌지만) 그의 오류는 살아있다’는 것이고, 맑스와 맑스주의자들은 이런 오류에 책임이 있다는 논조의 글이었던 것이다. 근자 러시아와 동구권에서 일부 맑스주의자들에 의해 맑스주의 부활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나는

‘맑스는 죽었다. 그러나 그의 망령은 살아있다’고 읊조리곤 한다.

II.

맑스주의가 무너진 다음 이제 어떤 이데올로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것이 떠난 땅들을 휩쓸게 될까? 그리고 맑스주의 이후에 서방 자본주의가 던지는 ‘새로운 문화’ 내지 ‘새로운 시대정신’은 무엇일까? 이런 문제가 뇌리를 스치며 복잡한 생각들을 일으킨다. 사실 우리가 이 학술지에서 다룬 주제인 포스트모더니즘은 동구 지역의 지성인들에게는 ‘반(反)맑스주의 철학’ 내지 ‘맑스주의에 대한 서방 세계 후기 부르조아적 이데올로기의 도전’으로 보여졌다. 개중에는 이 포스트모더니즘을 단순히 후기 부르조아적 이데올로기 정도로 보지 않고 ‘후기 부르조아적 이데올로기의 타락’으로 보며 비판적인 시각을 던지고 있다. 맑스주의가 무너진 지금 서방 세계는 막강한 이데올로기가 사라져 사상의 공동화(空洞化) 현상을 맞고 있는 동구 국가들에게 서방세계 선진화의 뿌리인 근세적 합리화(近世的 合理化)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돈과 함께 니체(Nietzsche), 그리고 광기(Mania)를 던져 주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이 정신적으로 실존하고 있는 세계는 1920년 M. Weber가 선구자적으로 외친 것처럼 ‘맑스와 니체의 각인(刻印)이 새겨진 세계’일지 모른다. 지금 맑스가 물러갔지만 니체의 불합리와 광기, 그리고 초인(超人)이 세상을 누비고 있다.

G. Deleuze는 맑스와 프로이드는 문화의 여명기에 해당되지만 니체는 반(反)문화의 여명기에 해당된다고 떠들었지만, 땅 위에 사는 대부분의 인생은 맑스와 프로이드는 물론 니체도 인류를 위해 구원의 메시지를 던질 수 없다는 나의 생각에 공감할 것이다.

Bloch와 Althusser의 ‘표정이 바뀐 맑스’를 제끼고 아무리 광인 Nietzsche를 떠들어도, 또 그 니체의 사상이 독일의 정신사를 뛰어넘어

일반적인 내용과 초국가적이고 초시대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떠들더라도 성경적 신학과 계시 신앙에서 볼 때는 한낱 하루살이처럼 단명한 해프닝에 불과한 것이다.

III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이란 뿌리와 줄기에서 열린 꽃이요 열매이다. 그것은 외형상으로는 모더니즘과 달라 보여서, 혹자는 그것이 모더니즘을 부정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비판적으로 극복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내면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볼 때 그것은 모더니즘의 연장으로 모더니즘의 이상이 실패하고 좌초하여 생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던적인” 현상이다. 그것은 서방세계가 줄곧 추구해 왔던 합리화와 세속화의 근대화가 낳은 독버섯이며, 따라서 서방 자본주의적 사회의 몰락기와 연관되어 있다. 말하자면 그것은 O. Spengler가 제1차 세계대전 후에 따른 ‘서구의 몰락’(Untergang des Abendlandes)을 암시하는 전조(前兆)와 같은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이 왜 서방 및 세계의 몰락적 징후를 나타내느냐 하면, 이 시대정신에서는 인간이 더 이상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또 개인은 삶의 진정한 의미를 상실하고 있으며, 나아가 인간은 욕망덩어리로 나타나고, 전통과 관습, 심지어 학문과 종교마저도 더 이상 그대로 인정되지 않고 극도로 상대화 되든지 아니면 거부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국은 근대적인 합리화가 아직도 성취를 향한 도상(途上)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보면 포스트모더니즘이 강 건너 불 격(隔巖之火)으로 여겨지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사회는 근대화의 과정을 치달기보다는 서구화의 길을 달음질하고 있기에 이미 서구의 포스트모더니즘이 우리 땅의 시대 정신으로도 자리잡아 가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의 문제인 것이다.

IV.

「통합연구」는 한편으로는 각 학문 분야에서의 기독교적 기초를 수립하여 기독교적 학문을 개발해 나가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거짓된 학문이나 그릇된 정신과 문화를 비판하고 복음을 옹호하는 변증적 과제를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전자의 과제에 치중해 오다가 이번 호의 「통합연구」는 후자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시대의 정신으로 대표적인 포스트모더니즘을 다루었다.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논의가 분분한 가운데에서도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심도있게 다룬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나의 줄고는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해 총론적(總論的)인 글로서 그것에 대한 논의에서 치우치기 쉬운 일방성이나 지엽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전반적인 측면을 다루었다.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깊이를 두고 핵심적인 것을 쉽게 서술하려고 했고, 또 기독교 세계관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성찰했다. 나머지의 글들은 각론적(各論的)인 논의로서 각 분야의 탁월한 학자들이 필진들로우고들을 보내 주셔서 각 분야의 구색을 잘 갖춘 셈이 되었다. 이들의 논의는 한결같이 심층적인 분석과 예리한 통찰, 거기에다가 가일층 수려한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어 포스트모더니즘을 여러 측면에서 조명하여 독자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바른 시각을 제공해 주고 있다.

김영한 교수는 포스트모더니즘이 신학에 준 영향을 기술하고 해체주의적 신학과 종교 다원주의를 집중적으로 살피면서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바른 비판을 제공한다. 박영희 선생은 포스트모더니즘 문학의 형성과 성격을 기술하고 그것이 국내의 문학 작품에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작품의 예를 통하여 잘 설명하므로 우리에게 소설에 대한 바른 접근을 제시한다. 권진혁 박사는 포스트모던 과학의 조류인 카오스이론을

중심으로 그의 논의를 떠나가고 있다. 신국원 목사의 글은 자신이 공부 하던 Dordt College의 인문학부에 내었던 과제물로서 주로 해석학 이론, 특히 Gadamer의 해석학을 살피고 그것이 신학이나 기독교에 주는 의미, 또 그것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 등을 상세하게 고찰한 논문이다. 김동춘 형제는 「포스트모던 신학」을 서평했는데, 서평이 책을 능가할 정도로 그 내용이나 서술에서 압도적이다. 번 햄이 편집한 이 책은 내용적 오류와 학적 어슬픔이 병존하는 별 가치 없는 책이지만, 책으로 나와 혼란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본 것이다. 일반논문 양 승훈 교수의 글은 과거 Whitehead나 Weber가 던진 질문인 기독교 신앙과 근대과학의 문제를 근년에 나온 와다나베 등의 연구들을 참조하여 다시금 다루면서 기독교가 근대과학의 태동에 중요한 기여를 했지만 기독교와 과학을 직접적으로 관련시키려는 시도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통합연구」의 필진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개척자들이요, 선구자들이다. 기독교적 연구가 여전히 일천(日淺)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각 학문을 수립하고 조명하며, 시대정신과 문화를 꿰뚫어 보는 작업을 하는 이들이다.

나는 우리 동역회원들은 물론 이 학술지의 모든 독자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연구한 많은 결과들이 이 책에 풍성하게 실리기를 바란다. 어렵지만 함께 하시는 주의 지혜와 능력과 함께.

1994년 7월 초
그들이 없는 한여름
편집인 전광식